

송대극회 제3회 신입생환영공연

윤대성 작

안홍순 연출

전경호 기획

출발

77. 3. 16 (수), 17 (목), 18 (금) 오후 6 : 00

송전대학교 대학극장



격려사

날로 發展하는 崇大劇會가 韓國의 創作劇을 公演하는 意義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演劇作品을 통해서 우리 崇田人들이 人間性에 對한 통찰과 社會에 對한 觀察과 또한 삶에 對한 目的에 對하여 綜合的 體驗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演劇은 더 말할 것도 없이 綜合藝術로써 모든 다른 藝術의 表現樣式이 複合된 하나의 藝術形式입니다. 따라서 自己表現의 技術을 鍊磨하고 達成하는 일에 置重하는 本校의 教育 目標中의 한 가지를 이같은 媒体를 活用하여 성취하는 일은 그지없이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崇田의 캠퍼스에서 面학에 힘쓰는 여러분들은 未來의 開放社會의 主人公들입니다. 그 主人公들이 演劇속에서 人間性의 眞理를 發見하고 人生의 참 뜻을 깨닫는 일은 重要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번 公演이 좋은 成果를 거두어 젊은 崇田人들에게 보람이 되고, 崇田의 빛나는 歷史에 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장직무대리

고 범 서 박사

연출



연출의 말

안 홍 순

「형스럽지도 추하지도 않은 두 人間의 對面이, 우리 자신의 두 얼굴이 있다」

생활의 리듬에서 유리되어버린 아픔이 쉽게 아물어지지 않는다. 깊은 망각속에 내 자신을 내맡기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조그마하지만 정성을 쏟아 보았다.

「無」에서 이끌어낸 생명의 맥박이 시간을 더함에 따라 숨쉬기 시작한다.

이제 자유롭게 방입해도 제 스스로 갈 길을 가겠지. 다시 「無」로 돌아 갈지라도.

理性和 感性이 아닌 本能에서의 만남이 言語의 유희로 끝나지 않기를……

연기



역원 / 김 영 덕

파는 時代에서
무엇을 빼앗는가.
아니…… °

아무것도 없다는데서부터 나의 役은 구름이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나.



사내 / 조 영 호

미처 이루지 못한
사내의 시간.
그것은 차라리 여백이다.



강 병 진



이 용 식



백 정 식



문 철 주



이 한 희



이 경 자

기획 / 전 경 호

연출 / 안 흥 순

진행 / 백 정 식

무감 / 이 용 식

분장 / 이 한 희

조명 / 강 병 진

장치 / 문 철 주

음향 / 이 경 자

「출발」 공연에 부쳐

지도교수 김 준 민

大學人の 첫째가는 使命이라 하면 아무래도 眞理에 의 探求라고 할 수 있겠다.

演劇에의 參與를 通하여 創造精神이 함양되고, 獻身과 奉仕精神을 伸張함으로써 人格向上을 도모할 수 있다는 點도 大學劇이 지니고 있는 高貴한 點일 것이다.

젊음의 血氣를 舞臺위에서 맘껏 發洩하려는 劇會員들의 情熱이 부럽다.

이 情熱이 식지 않고 계속 불 붙어 더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소리

기획 전 경 호

여기 조그만 극장의 문을 연다.
진지하고 순수해 지려는 젊음들이 모여
하나의 결실을 이루었다.
모든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뿐.
우리는 다만 진실해 지려한다.
누가 그랬던가?
「연극은 진실된 작업이다」라고.
신입생들의 입학울 축하하며 공연을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回	年 譜	作 品 名	演出
1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2	1969년 10 : 10	"의 자 들" 이오네스꼬 작	이태주
3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4	1970년 5 : 15	"聖者の 샘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5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류엘·베케트 작	김양기
6 回 演 劇 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종화
		전닐목 삽화*	주정서
		윤조병 작	한영재
		담배해독에 對해서*	유근배
		안톤 체홉 작	차현재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티스 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류엘·베케트 작	
7	1971년 11 : 4, 5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작	차현재
8	1972년 5 : 25, 26, 27	생 일 과 티* H. 핀터 작	한영재
9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 작	고봉인
10	1973년 10 : 25, 26, 27	방 H. 핀터 작 기도 (소극장) F. 아라발 작	차현재
11	1974년 5 : 27,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 5 막) A. 까뮤작	정종화
12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톰 W, Arving 작 (신입생활영)	김홍수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 북이	안홍순
13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방화범 Max. Frish	안홍순
14	1976년 3 : 17, 18	보석과 여인 이 강 백 작 (신입생활영)	김득남
	1976년 6 : 1, 3, 4	인 터 뷰 장·클로드·반·이탈리작	김득남
15	1976년 10 : 25, 26, 27, 28	뱀 장·클로드·반·이탈리작	김영덕